

『黃帝內經』에 의한 現代醫學의 檢證

朴贊國

含笑兒醫學研究所

通過『黃帝內經』探討現代醫學

朴贊國

含笑兒醫學研究所

筆者通過對韓醫和西醫學術思想的比較，從陰陽觀點進行分析，試批判對這種狀況沒能找到相應對策的韓醫界的教育及臨床醫學的各種問題，找出適當對策，並思考作為內經研究人員該做什麼。

第一 首先我們應該反省現在所實施的教育是否符合現實。為此應當對現今社會的陰陽均衡狀態進行分析，教育模式也應隨着這種狀態的改變而變化。現今世界逐漸轉變為陽盛陰衰的狀態，據此我們不能繼續使用舊的教育和臨床模式。第二 我們應當對富含哲學思想的傳統醫學擁有自信心，加強韓醫學理論教育。這樣才能正確教導學生，不使他們因為西醫內容好學，而隨派逐流。第三 不論是在學校還是在研究機關從事內經研究的人員，都俱有豐富的古漢語智識，對內經的研究傾注了心血，但是有人認為當今時代不符合內經思潮。看一下韓國情況，認為不必要學內經，應將西醫內容植入到韓醫學當中，這種傾向不少見。這不單純是各種社會條件的作用結果，我們作為內經研究人員也無法推掉責任。雖然不是件輕鬆的事情，但將內經內容應用到臨床的努力還很欠缺，並且沒能研究出更多成果提供給臨床工作者，我們對此有不可推卸的責任。為了不將我們這一帶在研究內經過程當中所承受的難處轉給後代，我們應該捫心自問並且要深思都做了些什麼？以後又將做什麼？韓醫學教育不僅要在大學校園內進行，在入大學之前，應該更積極的提供韓醫學基礎教育環境，為發展韓醫學做更多的準備工作。

關鍵詞：黃帝內經，現代醫學，韓醫學

I. 序 論

어떤 學問을 '옳다' '그르다'고 批判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個人的으로 得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何必 本人은 그 어렵고 得이 없는 일을 또 하려고 하는가? 現在 우리가 處하여 있는 現實이 너무나 慨嘆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出產率이 1%에 가깝고 不

* 교신저자 : 박찬국, 서울특별시 함소아의학연구소
Tel : (02) 962-4862

妊率이 15%이며, 現在의 젊은이들의 精子的 數値는 할아버지들의 半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現在의 평균 壽命의 延長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現在 늘어나고 있는 壽命이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速斷인 것 같다. 現在 大韓民國의 70以上の 老人들은 6.25以前에 成長을 마친 世代들이다. 60以上の 분들도 아직 젊은 時節에 農藥이나 抗生劑에 露出이 그리 甚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現在 出産率을 急激히 떨어뜨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現在의 老人들처럼 長壽하리라고 判斷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問題가 있다고 본다. 여러 報道에 나온 바와 같이 現在의 젊은이들의 精子的 數가 적고 不妊率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이는 精이 弱한 것이 틀림없으니 여러가지 疾病에 잘 걸릴 것이고, 壽命도 줄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물론 論者도 醫藥品 보다는 農藥이나 除草劑등에 汚染된 食品과 기타 環境汚染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醫學까지 이를 거들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論者는 韓醫學과 西洋醫學을 學問的 觀點에서 比較 檢討하고, 弦琴의 世上을 陰陽의 觀點을 가지고 分析해보고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韓醫界의 敎育과 臨床醫學의 問題點들을 批判하고,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內經을 研究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II. 本 論

① 哲學과 科學

周易 繫辭傳에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라는 말을 써서 道와 氣를 나누어 말한 바가 있다. 그런데 現在와 와서는 物理學 動植物學 등을 形而下學이라 말하고 哲學이나 神學 등을 形而上學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는 形而下學과 形而上學이 별다른 關係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科學과 哲學은 서로 關係가 없는 學問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周易에서 말한 形而下와 形而上이란 말은 원래 그러한 뜻이 아닌 것 같다. 內經에 天垂象 地成形이란 말이 있듯이 하늘의 理致가 象으로 땅에 내려오면 地氣를 받아 形이 이루어진다. 形이 이루어지고 나면 形 속에는 形象이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 이 形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 象인 것이다. 形이 이루어지고 나면 形은 環境에 적응하여 特性을 가진 器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과 器는 서로 分離될 수 없는 存在인 것이다. 즉 形而上者는 形而下者를 낳고 形而下者 속에는 形而上者가 들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哲學은 科學을 낳고 科學은 哲學을 그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科學은 形而下者인 自然 狀態, 즉 道를 품고 있는 形而下者를 研究의 對象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가 없어진 單純한 物質만을 그 對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世上에는 道를 품고 있지 않은 單純한 物質은 거의 存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科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이 世上의 物質들이 道와는 相關없는 存在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內經에서는 陰陽者는 天地之道也 萬物之剛氣也라 하였듯이 天地뿐만 아니라 萬物에 모두 陰陽의 法則이 通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陰陽이라 함은 單純한 物性を 말하는 것이 아니라 植物이나 鑛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動物과 같은 生老病死를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植物과 動物, 鑛物까지도 生老病死를 하고 있는데 어찌 이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

學問이 이들 속에 들어 있는 道는 除外하고 오직 이들의 物性만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있던 말인가? 이런 學問이 이들의 物性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萬物의 진정한 實體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論者は 韓醫學이 科學이나? 哲學이나? 는 質問을 받은 일이 많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韓醫學을 科學化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科學이 人類가 追求해야 할 最高의 學問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學問을 자기가 一時的으로 制限的 空間에서 느끼는 것으로 그 價値를 評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科學은 最高의 것이다.' '西洋醫學은 科學의이다.' '韓醫學은 非科學的의이다.' '그러므로 韓醫學을 科學化해야 한다.' 위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한 矛盾을 犯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科學이 最高의 것인데 韓醫學이 非科學이라면 韓醫學을 科學化하는 것이 아니라 韓醫學을 없애야 마땅하다. 반대로 韓醫學이 非科學的으로 發展하여 西洋醫學보다 優秀하다면 그 非科學的인 方法을 固守하고 發展시켜야 韓醫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但只 그 韓醫學적 方法이 現在 韓醫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趣向에 맞지 않고 또한 漢文이 어려워서 옛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理解할 수 없다고 하여 科學的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美國 사람이 韓國語가 어렵다고 韓國語를 英語로 바꾸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非科學的인 韓醫學을 科學化하면 이미 그것은 韓醫學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現在의 科學에 限界를 느낀 사람들이 科學을 새로운 方面으로 發展시키고 있다. 즉 植物에게도 感情이 있음을 認定하고 生態界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努力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科學과 哲學은 分

離되어서는 아니 된다. 哲學이 없는 科學은 飲酒運轉者가 運轉하는 自動車의 疾走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科學이 없는 哲學도 單純한 空理空論에 빠질 뿐이다. 東洋의 많은 文化가 있었음에도 오직 韓醫學만 實用學問으로 그 命脈을 굳건히 이어온 것은 다른 學問이 單純히 空理空論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韓醫學은 哲學을 안에 품고 科學으로 發展하였기 때문에 科學이 高度로 發達한 오늘에 더욱 그 名聲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행여 或者 들의 要求대로 韓醫學이 哲學을 버리고 純粹하게 科學化가 되어 버린다면 韓醫學이라는 整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② 變하는 것과 變하지 않는 것

或者는 우리 韓醫學은 예전에 비하여 發展이 없다고 한다. 發展의 基準을 어디에 두고 評價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韓醫學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陰陽五行의 理論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內經以後로 커다란 發展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運氣論이 唐代에 王冰에 의하여 만들어 저술되었다면 運氣論에 와서 三陰三陽論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커다란 發展으로 볼 수 있고, 金元四大家에 의하여 만들어진 相火論도 三陰三陽論의 理解를 돕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臨床에 있어서 傷寒雜病論을 필두로 시작된 病理論은 時代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였지만 金元이래로 발전한 滋陰降火論이 溫病學으로 이어진 것이 가장 뚜렷한 發展이었으며, 韓國에서 誕生한 四象醫學은 三陰三陽을 四象으로 要約하여 體質區分에 適用함으로 複雑한 病理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開拓한 것이다.

실사 理論과 臨床에서 새로운 發展이 이루

어진다고 하여 陰陽五行의 理論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陰陽五行理論은 原理 그 自體로 存在할 뿐이고, 이를 發展시켜 運用하는 것이 바로 우리 醫學徒에게 달려있는 責務인 것이다. 우리가 陰陽五行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臨床에 應用하지 못한다고 하여 陰陽五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陰陽五行을 發展시킨다해도 陰陽五行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 陰陽五行은 그냥 그대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內經의 말대로 이를 잘 따르고 利用하는 者는 繁盛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亡할 뿐이다.

③ 陰陽五行은 內經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道라는 것이 天地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實用價値는 사람이 이를 行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가 天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陰陽五行은 분명히 사람이 있기 전에 存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있고서 陰陽五行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科學이 世上을 風靡하고 있는 이때에 陰陽五行을 理解하고 臨床에 應用하는 醫者가 없는데 陰陽五行은 어디에 있어 그 價値를 認定받을 수 있겠는가? 陰陽五行은 內經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陰陽五行은 萬物의 變化過程에서 認識할 수 있는 存在일 뿐이다. 우리는 당장의 이 現實에서 또는 臨床에서 陰陽五行의 存在를 確認하고 移用할 수 있을 때 陰陽五行이 이 世上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內經을 研究하는 많은 사람들은 醫學을 하는 사람들이 內經을 읽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다. 그 외에 사람들은 內經의 臨床的 價値에 대하여 많은 懷疑를 가지고 있다. 물론 歷代의 名醫들이 모두 內經을 研究하고서야 名醫가 되었으므로 內經의 價値를 정면으로 否定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內經을 읽고

陰陽五行의 價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왜 現代人은 內經을 읽기가 어려운가? 바꾸어 말하면 陰陽五行을 理解하기 어려운가? 물론 이미 西洋科學的인 教育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다. 現代人이 살고 있는 環境이 自然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陰陽五行은 어디에서나 觀察하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무래도 人爲的인 環境보다는 自然에서 보다 쉽게 精確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現在의 學敎 教育이 微弱하게나마 自然과의 接觸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多幸이다. 우리 內經을 研究하는 사람들도 自然과의 接觸을 늘리고 自然과 現實 臨床에서 陰陽五行을 느끼고 생각하는 時間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方式으로 教育을 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④ 갈수록 기울어지는 陰陽의 均衡

地球 溫暖化의 問題는 어제 오늘의 問題가 아니라 이미 數十年 前에 提起된 것이지만 解決의 幾微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그 危機가 現實로 닥아 오고 있다. 여기서 論者가 言及하려고 하는 것은 環境的인 根本 問題가 아니라 人間에게서 나타나는 問題만을 言及하려는 것이다. 사람이나 生物이 살아간다는 것은 氣를 發散시켜 氣를 벌어들일 수 있는 形을 만들고 이 形을 통하여 氣를 벌어들여 貯藏하는 일을 反復하는 것일 뿐이다. 이 反復的인 過程에서 陽이 盛하면 發散이 過多하고 陰이 盛하면 貯藏이 過多하여 氣의 均衡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漢代 以前에는 陰이 盛하여 貯藏性이 彊하였으므로 傷寒論이 登場하였다. 그러나 魏晉南北朝와 隋唐宋을 거치면서 社會가 混亂하고 心性이 어지러워지면서 相火의 熾盛으로 火熱이 많아지자 金元에 이르러

火熱病論과 相火論이 擡頭하게 되고 이들은 學界의 呼應을 얻게 되고 明靑을 거치면서 溫病學으로 발전하여 現在 中國에서는 傷寒論보다 훨씬 많은 呼應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몇 大學에서 溫病學 講義가 開設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陰氣가 점차 弱해지고 陽氣가 盛해지고 있다는 證據인 것이다.

天地의 陰陽의 均衡이 이렇게 달라지는 根本 原因을 論者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단지 이렇게 天地之氣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學生들을 教育하고 또 臨床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陰陽論을 연구하는 內經研究者들이나 周易을 研究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討論하여 研究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한다.

論者가 보기에 中國에서 河北에 있던 사람들이 江南으로 내려오면서 溫病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研究가 많이 進行되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中國의 靑代의 人口는 秦나라 때에 비하여 3배 정도 增加하는데 그쳤지만 靑代 이후 지금의 中國人口는 10배에 달하고 있다.

그 만큼 人間社會의 變化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韓國이나 中國 日本은 數十年 前에 비하면 또 얼마나 변하였는가? 이러한 급격한 變化는 엄청난 氣候와 土壤의 變化를 일으키고 이에 아울러 사람의 體質의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30年 前의 韓國의 사람들은 飲料水로 따뜻한 黍甬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冷水를 모두 飲料水로 먹고 이것도 모자라서 얼음을 타서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身熱이 많은 것이 精氣가 實해서 그렇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不妊率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實熱이 아니라

결국은 虛熱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본적인 天地陰陽의 不均衡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醫學界에서는 人間에서 일어나고 있는 陰陽의 不均衡에 대한 宣言的 警告를 해서 최소의 義務인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 韓國의 大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教育의 實態를 살펴보면 東醫寶鑑을 爲主로한 臨床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다. 東醫寶鑑은 宋金元의 醫學이 정리된 것으로 滋陰降火說이 들어와 있고 溫疫에 대한 論述과 處方도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溫病에 대한 靑代의 體系的 論述이 빠져 있고, 대부분의 大學에서 溫病學에 대한 教育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 韓國의 臨床家에서 熱性病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溫補之劑나 辛溫之劑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大學 教育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⑤ 內經으로 바라본 現代醫學界의 虛와 實

內經이 著作되던 時期에는 아직 藥物療法이 일반화 되지 않고 黃帝의 主張대로 微鍼으로 疾病을 치료하려 했으므로 醫療費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醫療가 國家의 事業이고 醫師가 國家의 官吏였으므로 더욱 醫療費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貨幣經濟가 발달하고 私有財產이 增殖되면서 醫學은 점차 致富의 주요한 手段이 되기 始作하였다. 特히 資本主義의 發達과 産業社會의 登場은 醫療가 더욱 致富의 手段으로 轉落되는 것을 加速하였다.

韓國의 예를 든다면 醫學을 하는 것을 참된 醫療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醫學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手段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지도 않는 지경에 도달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理由가 있겠지만 韓醫學의 教育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여 신참 韓醫師들에게 진정한 韓醫學의인 醫療技術에 대한 自矜心을 심어주지 못한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현재 韓國이나 日本은 醫療保險을 시행하고 있고 中國은 社會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역시 保險과 類似한 醫療福祉 政策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形式的으로는 國民들이 충분한 醫療惠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患者를 많이 誘致해서 診療하고 또한 診療日數를 늘려야만 醫院의 經營收支가 좋아 지므로 자연히 過剩 診療나 遲延診療 虛偽診療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一般인들이 醫療의 質에 대한 評價 能力이 없으므로 患者를 誘致하기 위하여 廣告에 치중하고 과도한 施設과 裝備를 앞을 다투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돈은 처음에는 開業醫가 융통하겠지만 결국은 모두 患者가 몇 배로 불려서 負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韓醫學的인 診療로 社會와 함께 共榮하고픈 醫療人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醫學的 知識과 能力이 모자라는 형편이므로 이를 實行할 수 없는 것이다.

內經을 研究하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韓醫學을 學術的으로 理解하여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臨床을 하려면 內經을 필두로 傷寒雜病論 四大家書 溫病學 등 中國의 醫古典을 독파해서 외워야 하고, 韓國의 古典으로는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을 역시 읽고 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西洋科學 教育만 받다가 갑자기 20세가 되어서야 몇 년간 조금씩 內經 傷寒雜病論 등을 走馬看山격으로 하고 있으니 어찌 진정한 醫師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韓國이나 日本은 물론 中國에서도 어린이들의 早期教育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피아노나 마이올린 英語 등은 이미 3~4살이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韓醫學을 위한 教育만은 유독 20살이 넘어서야 하고 있으니 현재와 같은 西洋科學이 亂舞하는 시기에 어찌 진정한 韓醫學者와 臨床家가 나올 수 있겠는가?

각 大學이 진정한 韓醫學을 발전시킬 意志가 있다면 韓國의 民族士官學校 같은 中等教育機關부터 세워서 東洋哲學을 바탕으로 한 早期教育을 시행하면서 漢文 실력과 東洋의 自然觀 物質觀 등을 培養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발달한 醫療機器를 動員하여 人體를 정확하게 찍는다 하더라도 形體的 變化를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變化를 일으키기까지의 病理와 이를 解剖하여 手術하지 않고 藥物이나 鍼灸로 치료할 手段을 찾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머리를 통한 정밀한 分析을 통한 比較 綜合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能力은 自然이나 社會를 직접보고 살아가면서 體得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재 醫學을 한다는 學生들을 보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自然이나 社會와의 접촉은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III. 結 語

첫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教育이 現實에 맞는지를 한번 反省해 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世上의 陰陽의 均衡狀態에 대한 研究를 進行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教育도 變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現今의 世界는 陽이 盛하고 陰이 弱한 상황으로 꾸준히 變하고 있는데 舊態依然한 教育을 하고 臨床을 헤쳐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 哲學을 가지고 있는 우리 醫學에 대한 自矜心을 가지고, 哲學을 바탕으로 한 韓醫學 理論 教育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당장 쉽다고 西洋科學으로 휩쓸려가는 젊은 학생들에게 韓醫學을 제대로 教育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學校에서나 研究機關에서 內經을 研究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漢文 以後의 世代들이므로 누구나 自身들의 內經 理解에 엄청난 努力을 傾注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漢文이라는 글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時代가 內經의 思潮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韓國의 境遇를 보면 內經을 오히려 不必要한 科目으로 생각하고 西洋醫學을 韓醫學에 接木시키려는 努力을 繼續하여 왔고 아직도 그러한 傾向이 적지 않다. 이는 여러 가지 社會的 與件도 作用하고 있지만 內經을 研究하고 있는 우리들의 責任도 없다고만 할 수가 없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內經의 內容을 臨床에 接木시키려는 努力이 不足하였고 일반 醫療陣에게 必要한 內經의 研究 產物을 내놓지 못한 責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世代가 內經을 研究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後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努力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韓醫學 教育을 大學에서만 시킬 것이 아니라, 大學入學 以前에 韓醫學 教育을 위한 準備教育에 좀더 積極的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